

---

2000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被監査機關 農業技術센터

---

日時 2000年6月21日(水) 午前10時

場所 企劃經濟委員會會議室

---

(10時 44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韓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農業技術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계속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地方自治法 제36조제5항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農業技術센터 所長이 하게 되겠습니다. 所長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所長 孫太植; (宣 誓)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農業技術센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所長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평소 서울농업 발전에 많은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는 존경하옵는 鄭韓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저희 서울農業技術센터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서 천만 시민의 건강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농업 실천을 위해서 농업과 기술의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정착, 현장 위주의 농업기술 실천 등 5대 중점 추진방향과 82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서 시민과 함께 땀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계획했던 목표사업 중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공정도 6월 20일 현재 55%에 달하고 있어서 나머지 공정은 시기가 도래되는 하반기에 차질 없이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農業技術센터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따라서 지난해 제17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113쪽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4배가 넘는 474쪽을 준비해서 기한내 위원님들께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내용이 위원님들의 당초 요구내용에 걸맞지 않는 내용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해서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다시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자료로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서울농업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소망하면서, 금년도 저희 農業技術센터에서 계획하고 상반기에 추

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

(報告)

農業技術센터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감사합니다.

(鄭韓植 委員長, 李亮漢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亮漢; 農業技術센터 所長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가 도시화로 가는 중에서 가장 잇고 있는 것이 농촌기술 일 것입니다. 所長님 열심히 하셔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鄭圭鎭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일문일답으로 해주십시오.

○鄭圭鎭 委員; 鄭圭鎭 委員입니다.

農業技術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는 지난해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조직도 8개에서 4개로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축소되는데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지도직의 승진기회가 아마 굉장히 좁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대책, 공무원들은 뭐니뭐니해도 진급을 목표로, 또 진급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좁은 문이다 보면 부하 관리하는데 사기가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所長의 견해를 먼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니까 먼저 여기에 대해서 所長의 견해를 묻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所長님 답변해 주십시오.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鄭圭鎭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農業技術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그리고 승진기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98년, 99년 2년차에 걸쳐서 저희 조직은 엄청나게 큰 변혁의 시대였습니다. 정원 59명에서 정원 30명으로 거의 50%가 줄어서 현재 8개팀에서 4개팀으로 축소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地方自治法 제104조, 그 다음에 農村振興法 제3조, 제12조 규정에 보면 중앙정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지방에 농촌지도기관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과 또 서울시 자체로 시민을 위한 기술보급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업무는 오히려 구조조정 이전보다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 작년도까지 19개소에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텃밭의 경우도 금년도에는 52개소로 엄청나게 대폭 늘어서 여기에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 1만 4,70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이버식물병원 관계도 농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아파트 베란다에 원예를 한다든가 도시민들이 자그마치 35일 동안에 1만 1,875명이 저희 기관을 찾는다는 것은 저희 기관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천만그루 생명의 나무를 현재 심고 있는데 이 나무를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토양에 알맞는지, 과연 잘 자랄 수 있는지 토양정밀검증을 저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과거 구조조정 이전보다도 대폭 증가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을 하셨던 시민건강을 위해서 농약안전사용 업무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시민과 같이 가야 할 저희 기관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경상도 이쪽에서 재배됐던 농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가 현지출장을 해서 추적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는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저희 30명이 1인 2역, 다역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들게 되면 구조조정 전에 관용차량이 직원들 출장할 수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이후에는 운전기사가 1명입니다.

그러니까 1명을 제해 놓고 나머지 차량은 저희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현지를 찾아다니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저희 직원들은 시민을 위한다는 IMF 시대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두번째 내용 중에 승진기회,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저희는 행정직렬하고 다르게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풀로 들어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사, 농촌지도관 자리는 하나인데 영원히 승진 한번 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현재 農村指導官 자리가 소장 4급 하나, 5급 담당관 이렇게 두 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정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政府에서 보살펴 주었으면 생각을 하고 있고요.

所長 입장에서 한 가지 저희 직원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말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다르다는 차원에서 전문화, 국가에서 공인하는 기술사, 기사 자격증을 전부 스스로 따자,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도 해 주고 기술사는 수당을 5만원씩 국가에서 더 줍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鄭圭鎭 委員님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鄭圭鎭 委員;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그러나 소장이 부하들의 복지를 위한 연구와 노력, 또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윗사람들에게 건의를 해서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언급 했습니다만 천만그루 생명의 나무를 심는데 우리 農業技術센터에서는 토양 분석을 그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고, 왜냐 하면 나무를 심어서 생존율을 높여야 되는데 중랑천의 경우를 보면 이 지역에는 토양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農業技術센터에서는 이런 것을 그 동안 어떻게 대처했는지,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먼저, 鄭圭鎭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천만그루 생명의 나무심기 사업의 토양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農業技術센터에는 종합검정실이라는 토양 종합병원과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그루 생명을 나무를 綠地課를 통해서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農業技術센터에서 綠地課의 요청이 있기 전에 자체적으로다가 저희 검정실을 활용을 해서 정밀검정을 해 주는 것이 저희 기관의 본분으로 생각을 하고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똑같은 나무를 심더라도 저희 서울시 지역의 토양이 산성화가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랄지, 아니면 성장과정에서 중간에 도태가 될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520여 점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하고 처방을 해 주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綠地課에는 임업직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농촌지도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토양을 정밀분석은 하지만 이 토양에는 어떤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그런 기술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후에 두 기관 간에 하나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임업직을 저희한테 보내준다면 저희 기관에서 토양도 분석을 하고 어떤 나무를 선택까지도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조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鄭圭鎭 委員; 그러면 토양분석만 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없다, 임업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중앙부처와 협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市長한테 직접 건의를 해서라도 임업직을 배정받아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자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所長 孫太植;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금후에 두 기관 간에 이런 공동 노력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鄭圭鎭 委員; 그것은 본래의 계획단계부터 천만그루라고 하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을 때 많은 인력과 자원, 혈세들이 낭비되는데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지 않고 토양분석만 해서 던져버리면 그 나무는 누가 키웁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내립니까? 그 나무가 고사하고 난 다음에는 누가 다시 심습니까?

이번에 북경시 초청으로 북경을 방문해서 일주일 정도 북경을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거기는 5000만그루 식수를 하는데 지금 임업직,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 분석 데이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경시는 우리 서울시보다도 훨씬 더 푸른 녹지공원도 많고 아름드리 가로수들이 많은데도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 서울시보다는 훨씬 좋은 도시공간으로 발전되리라는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업직 문제는 앞으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천만그루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에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조조정에 관계 없이 필요하다는 것을 윗사람들한테 건의해서 필요한 인원을 받았으면 하는 바



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을 발굴해서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도심 아파트에 장독대를 둔다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또 요즘 신세대들은 장 담그는 것, 김치 담그는 것을 하지 않고 사서 먹는 이런 풍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農業技術센터에서 장담그기를 각 지역별로 추진하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우선 하고, 또 우리 서울지역에도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서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아까 강남쪽에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북쪽에는 없습니까? 자연학습장도 보니까 강남에서만 했다고 하는데 강북쪽에는 왜 없어요?

○所長 孫太植; 강북에도 있습니다.

○鄭圭鎭 委員;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서 확대할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所長 孫太植;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鄭圭鎭 委員님께서 도심지역에서 장담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남에만 하지 말고 강북지역에도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전통 장담그기사업은 강남구 세곡동 조숙자씨 덕을 포함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좋은 장은 효모가 발효돼서 맛을 내는 사업이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번째, 무공해 지역에 햇볕이 잘 드는 장소가 중요하겠고

요.

두번째로는 우리 콩, 우리 농산물로 만드는 재료가 중요하겠고요. 세번째는 관리자의 기술 이렇게 세 가지가 맞아야 가장 좋은 장으로 우러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지역에서 햇별이 가장 남향으로 잘 받고 공해가 비교적 없는 지역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의 위치가, 위원님들도 기회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모시겠습니다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효모 발효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강남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강북지역까지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鄭圭鎭 委員; 세곡동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도봉구 지역에도 남향이 많고 공기 좋고 다 좋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에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능 보유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시골에 살던 분들이 다 서울에 와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유능한 기능 보유자와 같은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좀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제역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구제역에 감염된 고기가 정말 인체에 해가 없는지, 또 우리 서울시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또 서울시에서는 발생한 지역이 없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鄭圭鎭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구제역 발생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소, 양, 돼지 등 말굽이 들로 갈라진 동물에서 나타나는 수포성 질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3월 26일 경기도 과주지역에서 발생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무서운 가축질병입니다.

5월 16일 현재로 종료가 되면서 전국 6개 지역의 15농가가 발생돼서 그 중에 약 2,200두의 아까운 가축을 살처분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가축질병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지역에서는 현재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지역이 522개동 중에서 19개동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지역에 소가 현재 670여 두가 사육이 되고 있고 돼지가 1,600여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계는 서울지역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사람의 인체에 해가 있느냐, 마스크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시다만 국제수의과학원이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의 킹박사에 의하면 구제역에 나타나는 병원균은 사람한테는 무해하다는 그런 정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구제역의 균은 76도에서 7초 정도만 경과를 하게 되면 완전히 사멸되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農水産流通課의 축산직 공무원들과 공조를 같이 해서 저희 農業技術센터에서 팸플릿을 5,100매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圭鎭 委員; 그러면 소, 양, 돼지한테만 이 병이 걸리지 사람한테는 안 걸린다?

○所長 孫太植; 네, 그렇습니다.

○鄭圭鎭 委員; 서울대학교 수의과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이 구제역은 수인성으로 되어 있어요.

동물하고 사람한테도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어떻게 오느냐, 감기증세로 온다는 얘기까지 내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더 연구해서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골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목동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먹골배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데 농가수가 얼마나 되고 재배 면적은 얼마나 되고 또 주재배 품종은 어떤 것인가, 또 이 먹골배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우리 農業技術센터에서 브랜드화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鄭圭鎭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먹골배 재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지역에는 동서남북의 4개 권역 중에 신내동 부근의 북부지역이 작물재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래서 신내동 부근의 먹골배,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가시면 먹골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대가 먹골배 주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과수면적이 96ha 정도 재배되고 있는데 그 중에 90ha가 먹골배 농가입니다. 농가수로는 95농가입니다.

먹골배는 해방 이후 서울에서 명성을 떨치는 그런 명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품종은 과거의 장십량에서 현재는 맛이 좋은 신고배로 75%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골배 브랜드화 사업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꽃가루

은행, 그러니까 배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타화수정, 자기꽃들끼리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꽃을 받아들여야 개화결실이 되는 특성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꽃가루은행을 30ha를 했고, 그 다음에 덕시설, 선반을 매주어서 폭풍우라든가 바람이 심하게 불었을때 넘어지지 않는 시설, 그 다음에 배는 물이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지하뿌리가 썩기 때문에 점적관수시설 이런 시설들을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鄭圭鎭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 자연학습장은 주로 유치원, 유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감자나 고구마나 채소 이런 작물을 직접 가꾸어서 수확한다고 하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취지일 것인데 어린이학습장이 텃밭재배형 농장과 병행을 해서 지금 유치원, 또 유아원 어린이한테만 국한하던 것을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확대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체의 노력만 하지 말고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성장기에 흙을 알고 흙을 배우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본위원이 제기하는 의견에 所長의 견해는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所長 孫太植; 기술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鄭圭鎭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자연학습장 운영형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텃밭 52개소 중에 3개소가 현재 유치원생들이 참여하는 텃밭으로 금년에

3,800여 명이 참여하는 자연학습장을 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4-H, 그러니까 학교 4-H회라 하면 13세에서 29세까지 해당이 되겠는데 청년기에 있는 학생들 1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농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농사체험장을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학습장이라고 저희 보고자료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확대 발전을 시켜서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생이 아닌 그 이상의 젊은이들에게도 확대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鄭圭鎭 委員; 자연학습장이나 텃밭은 주변의 산비탈에 밭들은 많아요. 그런데 동네에서 의지 있는 사람이 텃밭을 일구어서 많은 사람한테 1년 계약으로 분양을 하죠.

분양을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어떻게 하느냐, 지하수를 파야 된다고요. 아니면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끌어서 물을 주어야 돼요. 그러면 구청에서 뭐라고 하는가 알아요? 세금 내라고 해요. 돈 내라고 해요. 하수도세 내라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계랑기를 달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밭해서 벌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한 1,000평만 넘어가더라도 봄, 여름에는 텃밭을 운영하는 농가에서 물세가 15만원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얼마를 내야 돼요? 겨울에는 적게 내겠지만, 그러면 누가 텃밭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기술센터에서 서울시 방침으로 세워서 각 구청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텃밭 한 이랑 분양하는데 보통 몇 만원씩 하죠, 지금?

○所長 孫太植; 3 내지 5평에 6만원씩 하는 것 같습니다.

○鄭圭鎭 委員; 분양해서 월 15만원씩 물세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간. 그 양반이 남겠어요? 텃밭을 누가 운영해요? 그러니까 거의 심어놓고 풀은 풀대로, 요즈음같이 가물었을 때는 일한 것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나는 도봉구에 살기 때문에 아침에 매일 산을 올라가면서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텃밭 운영,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소, 갯수만 나열하는 행정,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세를 내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착안해서 기술 센터 소장으로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鄭圭鎭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梁敬淑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질문이라기 보다는 지적사항 겸 제안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약문제가 심각한데 농약의 안전성에 대해서 간이검사와 정밀검사, 그리고 현지검사 이런 검사들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적인 네트워크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이 농약검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수산물공사 그쪽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함께 협동으로 농약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잔류농약에 대한 예방책을 같이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러한 네트워크를 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함께 모색해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연계를 갖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農業技術센터가 별 크게 어떤 영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만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듯한 답답함이 있어요.

정말 農業技術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확대하려면 관련기관이나 업무를 협조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를 바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를 계기로 그런 진취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지적드리고요.

환경친화형 농업증대도 지금 시민참여 텃밭가꾸기니, 시민자연학습장 조성이니, 친환경농업 기술시범이니, 저공해 신선채소 생산 이런 기술 등등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정도의 미미한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술센터 자체가 어떠한 일들을 해내고 있다는, 또 하려고 한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이지 시민들한테 거의 영향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의 環境管理室에서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또 연구원에서도 이러한 사업의 방향들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트워크를 가지세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들이 집행되고, 또 예산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구축한, 그러니까 담당자들을 만나서 그 부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협조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국가기관에서도 중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기관별로 조금씩 조금씩. 거의 효과도 드러나지도 않고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벌려 나가고 있는데 農業技術센터 자체 만이라도 그러한 네트워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엮어 보



세요.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서 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데 하는 데가 많거든요. 환경단체라든지 유기농도 그렇고.

그러니까 민간단체, 기관, 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들이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지금 너무 중복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을 앞으로 하시고요.

제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이버 식물병원이예요. 이런 것은 저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農業技術센터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나가는 방법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뭔가 앞서가는 정책을 내세워서 그것들을 정착시켜 내고 이 분야에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 그것밖에 農業技術센터의 기반을 확고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른 환경친화적인 농업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특화된 분야에서 서울시의 農業技術센터는 사이버상에 있어서 농업분야의 선도적인 이론이라든지 실질적인 학습이라든지 또 제안들을 해내는 기관이고, 그것들이 자유롭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센터다라는 인식 하나만 여러분들이 서울시나 시민들한테 심어준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발전적인 것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좀더 이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러면 農業技術센터가 왜 필요하냐 그런 말도 안 나오게 돼요, 이쪽을 특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다른 데에서 이미 더 잘 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실행해 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이런 방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존재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오히려 확대 재생산해서 좀더 좋은 방안으로 보강하고 정보도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세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그래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서울시의 위상도 이쪽 분야로 높아지고 農業技術센터의 위상도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전통음식문화 발굴 및 개발 보급 이것도 農業技術센터가 이런 일을 할 데인가 하는 의문도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김치를 農業技術센터에서 만들어서 얼마나 보급할 수 있겠어요? 그 이전에 이미 김치라든지 한국 고유의 음식들을 모든 가정에서 다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고 있는데 農業技術센터가 그것을 만들어서 보급한들 얼마나 보급이 될 수 있으며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민간단체 중에서도 전통음식에 관한 민간단체들을 사이버시대니까 인터넷상에 들어가보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체들이 아주 많아요. 김치만들기운동본부, 김치사랑보급운동본부 등등 정확한 명칭은 아닐지 몰라도 그런 기관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대규모 강좌라든지 구별로 돌아다니면서 민간단체하고 農業技術센터가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켜 준다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실행시켜 본다든지 그러한 역할들을 할 때 돈도 적게 들고 위

상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전통음식문화의 거리를 몇 개 지정하는 것을 나서서 해주면 어떠냐, 김치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보다는, 예를 들면 종로에 청진동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에서 전통음식을 서울에 와서 먹어볼 수 있는 거리 이런 것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왔는데 전통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될까, 아무도 그것을 과감하게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이나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가져서 몇 군데를 한국음식 전통문화의 거리를 우리는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고 민간 단체와 협조해서 지원하고, 예를 들면 거리를 깨끗하게 꾸며 준다든지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農業技術센터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지금 뭔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고 방향을 소극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상 자체도 위협받고 있고 이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農業技術센터 사실 필요가 없어요, 서울시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한 번 업무재설계를, 그야말로 BPR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農業技術센터가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 번 설정해서 그 중에 몇 가지 주제를 잡아서 전망을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늦어지게 된다면 기관 자체의 존립문제도 제기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저의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吳世根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吳世根 委員; 農業技術센터 孫太植 所長님 수고 많으십니다.

農業技術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는 孫所長께서 사실은 일은 많이 하는데 큰 빛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업적은 많고 일도 많이 하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농업인구가 줄고 농경지 면적이 줄다 보니까 사실은 텃밭 가꾸기랄지 한강 수질오염 관계를, 우리가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소장 이하 農業技術센터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실적이나 업적을 떠나서 소신껏 업무수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훼재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서울에는 많은 농민들이 화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나라의 화훼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며, 또 서울시에서 생산하는 농가의 수출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화훼재배의 종류 및 국내 생산실적을 총 금액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농업인 후계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업인 후계 세대를 이어가기 위하여 선정한 농업인 후계자가 서울시에는 69명이 있다고 하는데 농업인 후계자가 되려면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인원을 늘려나갈 생각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정된 후계자는 구청별로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所長 孫太植;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吳世根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훼농가 수출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農林部 자료에 의하면 농.임업의 연간 수출목표는 화훼뿐만 아니라 농.임업에서 총 20억불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화훼, 꽃재배는 연간 목표액이 1,200만불 정도가 됩니다.

주요작목으로는 선인장, 백합, 난, 장미 등이고 이 중에 대부분이 절화류가 65%로 수출량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은 가까운 일본이 전체가 2/3를 차지하고 있고 꽃의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홍콩, 미국에도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은 현재 229ha의 꽃 재배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재배되고 있는 꽃은 천만 시민을 겨냥한 내수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까지는 물량이 부족해서 충당을 못하고 있고요.

서울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꽃은 화분에 담은 분화류가 전국의 14%가 서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모두에서 보고드렸습시다만 서울의 229ha에 농가수가 1,161호가 꽃농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세번째로 많은 농가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화훼농업이 발전된다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농업에도 저희가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업인 후계자 선정절차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매년 1월 20일까지 40세 미만의 농업에 뜻을 가진 청.장년들에 대해서 農業技術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중에는 政府의 일정한 목표물량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에 따라서 자체 민간인을 포함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개인별로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선정한 후 행정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들이 확정을 하고, 1인당 자금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연리 6.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후계자 69명은 구청별로 가장 많은 지역이 서초구에 25명의 후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가 15명, 강서구가 13명, 강동구가 7명, 송파구가 5명, 광진구가 1명, 기타 인원이 포함돼서 69명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吳世根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금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저리로 융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들이 대부분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담보랄지 제3자가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吳世根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후계자 융자자금 회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2,000 내지 5,000만원의 금액이 확정되면 연리 6.5%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나 저희 지도기관에서 후계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인 농협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연대보증을 세워서 용자를 받습니다. 농업을 하는 후계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에도 신용도가 높아야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자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郭順英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順英 委員; 郭順英 委員입니다.

신선채소 생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 세곡지역, 또 강서 개화지역, 강동의 하일동지역, 송파구 문정·장지지역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장지지역에서는 거기 탄천의 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쓴다고 하는데 그 지하수의 오염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으면 세밀하게 밝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약 안전성 문제입니다. 배추라든지 이런 농산물에 농약을 뿌릴 때 상당히 진하게 뿌리는 상태가 되어서 배추의 꺼풀에 몇 개 정도 스며드는지, 스며든다면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축산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육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지, 또 사육을 하는 데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所長 孫太植;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다.

郭順英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선채소 생산에 대해서 탄천물과 지하수 오염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용 용수와 사람들이 마시는 음용수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용 용수는 여기 영양소, 질소·인산·가리가 다소 섞여 있는 것이 작물생육에 도움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생수로 쓰는 음용수에 이런 유기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부적격한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지역은 대도시이기 때문에 혹시 공장 주변이라든가 인근 오염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저희가 지난 94년부터 98년까지 서울시 토양을 한번 직접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서울지역에서는 지하수나 탄천수 자체가 농업용수로는 최적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한 수준이다 그것을 보고드릴 수 있고, 단지 한 가지는 장지동 주변에 하우스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우스지대에 화학비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화학비료 성분인 질소·인산·가리 중에 인산질이 토양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우스 주변에 보면 파란 이끼가 끼어 있는 것이 인산성분인데 이것이 쌓이다 보면 비료를 추가로 주더라도 많이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 조사치는 전체 토양의 77%가 기준보다도 초과되었다, 인산성분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의 예는 아닙니다만 우리 농작물에서 지하수가 중요한 것이 인천의 경우는 농업용수로 쓰는 지하수 중에 소금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염도 때문에 작물이 죽는 사례가 있고,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지하수 중에 철분성분이 너무나 초과량이 검출되어서 그 물을 하우스에 쓰게 되면 하우스 자체 비닐이 빨갱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광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지역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농약 안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민들 건강과 또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모두에 보고드렸지만 농약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내용은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농약 중에 작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긴 농약이 14일을 넘지 못합니다.

거기에 다이아톤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한번 뿌리고 나서 14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하면 흔적도 없습니다.

토양중에 분해가 돼서, 또 하나는 공기중에 분해가 되고 체로상태가 되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되고, 그 농약 중에 생물농약이라는 비티농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비티농약을 주게 되면 단 하루만에 완전히 소모가 되기 때문에 농약잔류에 대해서 문제는 되지만 시일이 경과되게 되면 인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축산 가축사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에는 522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환경공해 차원에서 대부분이 가축사육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외곽지역,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는 아직도 19군데가 가축사육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의 외발산동이라든가 오쇠동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서초구의 내곡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가축이 현재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축사육에 대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도시의 공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 공해방지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다든가 여기에 기술지도를 쏟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郭順英 委員; 그러면 신선채소 재배에 있어서 토질이 이미 오염이 돼서 몇 년씩 재배를 하다 보면 서울 같은 데는 장지동에 무, 배추를 어떻게 보면 하우스에서 짓지를 못합니다. 저도 가서 확인해 봤어요. 거기에 무를 심으면 밑의 뿌리가 갈라집니다. 갈라지면서 무의 상품성이 없어져요. 이쁘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하도 연작을 해서 토질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토질보다는 오염된 토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郭順英 委員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윤작관계, 연작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4년, 5년, 10년 짓다 보면 토양 자체에 오이를 계속 심었다고 하면 오이에서 나타나는 해충이라든가 병이라든가 그런 것도 누적될 수가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 비료를 계속 주다 보면 인산성분이 축적이 돼서 비토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토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이 기술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윤작, 돌려짓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하우스를 계속 했던 토양은 거기에 물을 대서 벼농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오이를 심었던 작물을 작물을 바꾸어서 고추를 심는다든가 작물을 바꾸어서 윤작을 함으로써 거기에 나타난 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경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郭順英 委員; 그러면 신선채소라는 얘기가 맞지를 않습니다. 연작하는 토질에 소채가 거기에서 생산될 때는 신선채소가 아니죠. 그러면 명칭을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나오는 것 연작한 것은 신선채소이고, 또 지방에서 나오는 것은 신선한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채소에 대해 명칭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金東郁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東郁 委員; 金東郁 委員입니다.

먼저, 구내 통신망 홈페이지를 아까 우리 梁敬淑 委員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과 더불어서 지적을 하나 드리면, 서울시민이 천만인이기 때문에 천만그루를 서울시에 심어야 된다는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사업을 하기 보다는 우리가 500그루라도 100그루라도 정말 필요한 녹지지대라든가 필요한 공원이 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무를 심고 그것을 사후에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가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1인 1나무 심기까지 해가면서 명패까지 달아 놔는데도 불구하고 심은 사람의 관심소홀이라든가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성 있게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시민과 함께하는 친환경사업 해서 1만 4,763명, 그리고 52개 곳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52개 곳이고 지금 현재 2,000부의 교육 자료를 배포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곳에 사실은 가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곳에서 교육자료를 봤거나 그런 교육자료에 의해서 되고 있는 곳은 제가 가 본 곳은 없었어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 아이들이 농촌생활을 알고 자연을 잘 알고,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올바른 취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관리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즉 말해서 녹지대 있고 외곽지대에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야채를 뜯어서 술도 한 잔씩 하고 향락문화로 갈 수 있는 부분, 토양의 질적 저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지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주말농장 하면서 자연하고 친해지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주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우리 서울시에서 올바르게 교육을 할 것이냐, 그리고 시민들은 올바르게 알고 상추를 하나 심더라도 심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그에 대한 관리 및 교육방안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金東郁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첫번째 천만그루 나무 심는 것은 많이 심어서 죽는 것보다도 적게 심더라도 알차게 생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겠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저희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녹지과 사업이지만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도 녹지과하고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텃밭관계 앞으로 교육방안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텃밭농업은 개소수도 많고 또 참여하는 농민수가 아니라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수도 많고 해서 저희는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현장을 나가서, 도봉구에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봉산 김종기씨가 하는 주말농장 형태가 있고, 또 그 옆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파종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파종하고 정식을 잘못해 놓게 되면 작물 자체가 문제가 되

기 때문에 밭의 토양검증을 정확히 해서 이 토양은 비료를 어떻게 주십시오 그것을 처방해 주고 현재 작물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내용 텃밭가꾸기, 채소가꾸기 내용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텃밭을 금년에 운영을 해 봤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었는가 그것을 평가한다는 차원에서 연말에 텃밭가꾸기 사례집을 회원들간에 사례를 수집해서 수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IMF 체제하에서 이 사례내용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정말 실적을 해서 갈 곳이 없었는데 가족들과 같이 텃밭을 통해서 인생수양을 했다는 이런 글도 실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텃밭관리, 사후관리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다음은 鄭鉉均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鄭鉉均 委員; 鄭鉉均 委員입니다.

우리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의 보고사항과 동료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제가 포괄적으로 農業技術센터의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과 보고사항을 듣고 보니까 農業技術센터가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 좋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5가지 사항에 한 16개 사업의 면면을 보면 정말 훌륭하게 그 동안 일을 잘 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農業技術센터가 우리 서울시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번 구조조정때 왜 農業技術센터가 능동

적으로 구조조정에 대처하지 못하고 의회에서 시키는 대로 구조조정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農業技術센터 所長이, 물론 지난 구조조정 과정에서 힘없는 부서만 과감하게 대폭 구조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앞으로 많은 인력을 충원을 해서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所長께서는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집행부 상부에 또는 중앙정부에 자기 부서에 대한 당위성 같은 것을 보고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몹시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설득이 어렵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교감을 해서 農業技術센터가 시민들을 위한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고사항에 농약 안전성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있는 재배농가에 대해서 직접 열무를 갈아 엮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農業技術센터는 사법권이 없죠?

○所長 孫太植; 네, 없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농가하고 마찰 같은 것은 없었는지, 마찰이 일어났을 경우 그런 행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낀 대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는 강서지역에 가장 많은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항공방제를 하고 있죠?

○所長 孫太植; 네, 그렇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런데 항공방제에 사용하는 헬리콥터는 사용

하는데 관계부서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떠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동아일보 6월 17일자에 서울시민이 서울쌀을 희망할 경우에는 農業技術센터로 연락하면 구입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났는데 언제라도 구입이 가능한지, 그에 대해서 또 홍보를 그때 신문에 잠깐 내고 다른 방향으로 홍보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포괄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가 여러 가지 농약 안전성문제 같은 것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하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재배지역에 교육을 보내야 되고, 또 아까 鄭圭鎭 同僚 委員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출장을 가려고 하면 기능직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農業技術센터의 향후 업무계획과 인원증진 방안을, 인원이 필요한 계획 같은 것을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우리 鄭鉉均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문제는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직급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공개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을 하셔서 지금 센터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鄭鉉均 委員;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해 주세요.

○所長 孫太植; 감사합니다.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다.

鄭鉉均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약 안전성 검출농가에 대해서 하일동에 한 농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입회를 시키고 갈아 엮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농가 입장에서든 가슴 아픈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목격하고 입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농민들의 마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농가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농가가 농약 검출이 되면 그 농가는 마을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합니다. A라는 농가 때문에 우리 마을에 오명을 입혔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면 미안해서 어쩔줄 몰라 합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서울농민들이 농약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 자체는 거의 모든 농민들이 같이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강서 벼농사 항공방제, 그것이 과거 1980년대 초반, 역사가 약 20년 정도 됩니다.

저희 서울지역에 670ha의 벼농사 면적이 있는데 그 중에 82%인 551가ha가 주로 강서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각종 항공방제의 필요성이, 항공방제가 일반 기존의 방제방식보다도 환경농업 차원에서도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개별 벼농사를 지을 때 필수적으로 농약을 뿌려야 할 횟수가 9번입니다. 그런데 항공방제는 4번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환경농업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한 인력도 약 2/3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협력체제, 네트워크를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는데 20년 전부터 農協과 江西區廳, 저희 農業技術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동방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방헬기가 절대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서울시에는 3대의 항공방제용 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1년에 네 차례씩 항공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점차 消防防災本部 쪽에서도 119 인력구조 때문에 헬기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6월 15일에도 그 내용을 産業經濟局長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감히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계기가 되면 유관기관 합동으로 강서지역의 항공방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국내외 귀빈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때 바로 강서지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병충해가 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항공방제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강서지역의 쌀, 지난번 동아일보에 홍보가 되었습니 다만 비록 적은 양이지만 서울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대단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주, 이천 쌀만 좋은 것이 아니고 광활한

김포평야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을 충분히 받고, 또 금년의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벼를 적기에 못 냈습니다만 저희 서울지역은 5월 30일까지 전부 다 냈습니다.

그리고 수질도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또 항공방제로 농약에 대한 문제점도 없기 때문에 미질 또한 우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동아일보에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쌀을 먹어 보지 않으면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다라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 다만 대단히 쌀이 좋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도 하고, 현재 지난번 보도 후에 1,000kg이 시민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물량이 없고 금년 농사를 지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다음은 李容富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容富 委員; 李容富 委員입니다.

우리 孫太植 所長님에게 몇 가지 정책적 제안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소장께서 텃밭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한 교재제작 내지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텃밭가꾸기 추진 실적이 19개소이고 교재제작이 1,500부, 그리고 텃밭가꾸기 사례집 발간. 배부가 500부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홍보와 교재를 제작해서 당초 의지를 가지고 실천했던 시민들이 삭막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의 정취를 도심에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했던 것들이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李容富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텃밭가꾸기사업의 홍보를 위한 교재와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그 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1만 4,700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례집이라든가 교재도 거기에 걸맞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많은 양을 제작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하고, 향후에 서울시정이나 저희 사업의 홍보차원에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우리 소장님의 의지대로 시책방향이 결정되면 그런 부분에서 종래의 어떤 제도적인 모순에서 오는 방법대로 예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보다는 당초 정책을 결정했을 때의 의지를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정책적 대안에 따른 부분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農業技術센터가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아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孫太植 所長께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동료 金東郁 委員님께서 지적하시고 정책적 대안으로 질의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그런 내용들이 방금 우리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재제작이나 홍보효과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있고, 그러한 것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합

니다.

金東郁 委員께서 지적하는 그 내용에 첨언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시장의 지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부족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農業技術센터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所長 孫太植; 네.

○李容富 委員; 덧붙여서 본위원이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실시를 하는데 시범지역 선정경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여러 가지 선정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범농가 현황을 보면 1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1개소라는 것은 대상자가 몇 명 신청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까?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李容富 委員님께서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 선정절차와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시범사업은 모두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만 27종에 82개 시범포가 되겠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뭔가 좀 시민들한테 공개행정 차원에서 저희가 1월부터 2월 사이에 약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

지역을 순회하면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시민들, 농민들이 그 내용을 몰랐는데 교육 당시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지도사업 안내책자를 발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이 내용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합니다. 그렇 게 해서 개인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은 1개 시범포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신청된 내용을 어느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짓는다고 많이 주고 적게 짓는다고 적게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시범포선정심의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단체,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작목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1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내용을 개인별로 전부 체크를 해서 거기에 가장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시범농가로 확정을 짓고, 농가에 통보를 해 주고, 農村振興廳에서 발행하는 기본지침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容富 委員;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의해서 대상농가 선정할 때 지금 대상농가라고 해서 27개 업종에 시범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시범농가 선정이 실제 거의 객관적인 자료에 드러난 것을 보면 많은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발하게 시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인지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 農業技術센터 所長께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좋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의 잘못만 들추어내는 소위 네거티브적인 그러한 감사가 아닙니다. 기왕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심의를 해서 좋은 발전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잘못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所長 孫太植; 감사합니다.

李容富 委員님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82개 시범포가 금년에 계획인데 농가신청을 받아보니까 2배수 내지 3배수 이상의 희망자가 몰렸습니다.

사실은 희망자들한테 100% 혜택을 주어서 지원도 해 주고 시범포 관리를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범사업의 개념은 시범사업을 1년차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그것을 이웃농가들한테 파급효과를 노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容富 委員;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적어도 정책적인 배려, 또 시책사업 이런 것들이 조기에 추진되고 당초의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목요연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

고 있으면서도 보고를 위한 사업, 또 실적을 위한 사업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하지 말고 이제 개혁적인 의지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 같고, 실제 서울인구에 비해서 농업 인구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의 전근대적인 농촌형 전원형 농업방식 이런 것들을 희망하고 갈구하고 우리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참교육의 열린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農業技術센터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제에 이런 것들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내서 시민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21세기가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증진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징수 및 집행현황에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취소됐는데 취소된 배경이 뭡니까?

○所長 孫太植; 農業技術센터 所長 孫太植입니다.

李容富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산학협동심의회 취소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제도 자체가 해지가 됐고 시·도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체 심의회, 예를 들면 저희 시범포선정심의회, 조금 전에 19명으로 구성이 됐다는데 그런 식으로 자



체실정에 맞도록 구성을 해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容富 委員; 지금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많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양과정에 있어서 종래의 어떤 지침이나 시책사업들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 해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전국 16개 시·도의 네트워크를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서 만들도록 위임해 주었으면 이런 부분도 자체심사를 하는 것보다는 물론 관계전문가, 그리고 학계, 우리 서울시 집행부, 그리고 집행부를 관리 감독하는 의회 해서,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해당 단체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겠지만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분들도 이 심의회에 참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朝令暮改식으로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을 보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所長님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 뭔지.

○所長 孫太植; 감사합니다. 산학협동심의회라든가 자체 심의위원회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폭넓게 여러 인사를 수용하라는 질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분야별로 또는 민간인 단체, 또 학계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는 시립대학교에 저희 원예파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더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容富 委員;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所長님께서서는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들에게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동의 받을 것은 동의 받으시고, 所長님 힘으로 안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

그래서 所長님의 의지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위원들의 힘이 필요할 거예요. 그 힘을 빌려서라도 하셔야지 예산 타령만 하고 저는 힘이 없어 안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農業技術센터는 서울시 센터입니다. 서울의 환경에 걸맞는 센터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農業技術센터 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農業技術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8分 監查終了)

---

○出席監查委員

鄭韓植 張夏雲 李亮漢 郭順英

金東郁 梁敬淑 吳世根 李容富

鄭圭鎮 鄭鉉均 黃好淳 明英鎬

趙相勳

○專門委員

金東秀

○被監查機關參席者

農業技術센터所長 孫太植